

첨단 벤처 키우고 취약층 빛 줄인다... 5년간 108조 공급

NH농협금융이 금융의 무게중심을 가계여신과 이자수익에서 기업과 지역, 농산업으로 옮기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생산적·포용금융에 108조원을 공급하는 'NH상생성장 프로젝트' 아래 올해 상반기 14조89억원을 공급해 연간 계획의 72.8%를 이미 채웠다. 전국 1200개 이상 사무소와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캐피탈의 역량을 잇는 '원 펌(One-Firm)' 전략이 실행 중이다. 농업·농촌과 지역기업부터 첨단전략산업까지 자금 공급 대상을 넓히는 동시에 금융취약계층에는 금융 접근과 비용 완화, 신용 회복을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① 서울 서대문 NH농협금융 전경. ②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왼쪽 일곱번째)과 생산·포용 금융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7월30일 서울 종로구 NH농협타워에서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지역밀착금융 계획을 점검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③ 지난 8월 28일 NH투자증권은 농협중앙회 창업농지원센터와 함께 'NH투자증권과 함께하는 라이브커머스'를 개최했다. ④ 지난 8월 27일 농협중앙회 청년농부사관학교 토마토반 졸업생 전원에게 고급 공구세트를 증정하였다.

/NH농협금융

⑤ NH농협금융



◆ 상반기 14조 공급...연간 목표 72.8% 달성

NH농협금융의 6월 말 기준 내부 추진 관리 집계에 따르면 상반기 생산적금융 공급 실적은 11조8658억원, 포용금융은 2조 1431억원이다. 총 14조89억원으로 연간 계획 19조2504억원의 72.8%에 해당한다.

7월 NH농협금융에 따르면 생산적금융은 연간 계획 16조4717억원의 72.0%, 포용금융은 2조7787억원의 77.1%를 각각 채웠다. 생산적금융 실적에는 국민성장펀드 관련 실적 7630억원이 포함됐다. 국민성장펀드 관련 연간 계획은 2조3000억원이다.

NH농협금융은 지난 1월 그룹 차원의 생산적금융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별위원회는 모험자본·에퀴티, 투·융자 활성화, 국민성장펀드, 포용금융 등 4개 분야를 통해 계열사의 추진 상황과 신규 사업을 관리한다. 공급액 확대를 넘어 기업 발굴과 투자, 심사, 사후관리까지 그룹 차원의 실행체계를 갖추려는 조치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은 "가계여신과 이자수익 중심 영업의 한계를 돌파하고 기업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간 계획 19.2조 중 72.8% 채워 동남권 기업에 10조 금융서비스 연내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첨단전략산업 육성 촉매제 기대 취약·청년층 금융생활 복귀 지원

◆ 1200개 지역망...첨단산업까지

NH농협금융이 내세우는 차별점은 지역에서 기업과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현장망이다. 지난 4월 경남 창원에 동남권 '해양·항공·방위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열고 은행·증권·손해보험·캐피탈이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5년간 동남권 기업에 10조원 규모의 대출과 투자, 자산관리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계열사 자금을 모아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속도 넓히고 있다. NH농협금융은 연내 총 1조원 규모의 'NH 대한민국 상생·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인프라 투자에 특화한 1호 펀드 5000억원을 결성한 데 이어 기업금융 특화 모험자본 펀드인 2호를 당초 1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증액해 9월 초 결성할 예정이다. 2호 결성이 마무리되면 1·2호 합계 규모는 9000억원이 된다.

NH-Amundi자산운용이 운용하는 2호는 NH농협은행·NH농협생명·NH농협손해보험·NH투자증권·NH농

협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의 내부자금으로 구성된다. 향후 자금의 60%는 중소·중견기업과 벤처·스타트업,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한 크레딧·메자닌 등 모험자본에 투입하고, 40%는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직접·간접 투자에 배분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2호 펀드가 시장성 차입이나 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동시에 국민성장펀드 추진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산업과 기후금융은 NH의 정체성을 살린 생산적금융 사례다. 농협금융은 지난해 말 기준 4100억원 규모인 농식품펀드를 향후 5년간 최대 1조원으로 확대해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기업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지난 6월에는 전환금융 후보군 30건 이상을 검토해 농업·농식품·반도체 분야 3개 기업에 총 122억원을 공급하고, 적정성 판단 기준과 심사·사후관리 방안을 실제 여신 심사에 적용했다.

관건은 조성과 공급 계획을 실제 기업 투자로 연결하는 속도다. 2호 펀드는 아직 결성 전이고 동남권 10조원 공급도 5개년 계획이다. 펀드별 투자 건수와 집행액, 지역밀착금융의 수혜 기업이 구체화돼야 108조원 로드맵의 질적 성과도 가능할 수 있다.

◆ 포용금융...대출에서 재기까지

포용금융은 대출 문턱을 낮추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취약계층과 지역 청년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금리를 낮추는 한편, 연체 이후에는 채무조정과 재기자금으로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구조다.

NH농협금융은 취약계층을 위한 'NH 대한민국하나로이음대출'과 지역 청년을 위한 'NH청년지역리턴대출'을 출시하고 서민금융상품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NH포용금융 우대금리'를 도입했다. 'NH 신용회복파트너'를 통해서도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1인당 100만원, 총 300억원 한도로 재기자금을 지원한다.

범농협 차원에서는 올해 총 9276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감면과 추심중단을 추진한다. NH농협은행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에 100억원을 특별 출연해 마을기업 등 지역 기반 기업에 15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지역에서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보증과 대출, 채무조정까지 잇는 방식이다.

이 회장은 "다른 금융회사보다 지역친화적인 농협금융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협금융 전 임직원이 참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seoul.co.kr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